

나주시,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중위소득 32%이하 생계급여 대상 1인가구 월 4만·4인가구 월10만원 로컬직매장·하나로마트서 구입 가능

나주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신선한 지역 농산물 구입비 지원에 나섰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17일부터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활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바우처 카드에 농식품 구입 비용(국비50%·도비15%·시비35%)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 18세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다.

단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생계급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

용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잡곡, 두부류이며 바우처 카드 사용 매장은 로컬푸드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으로 이달 중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농식품산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

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저소득가구의 식재료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와 성장기 자녀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오는 3월부터 바우처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신청을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마늘·양파·맥류 동계작물 생육재생기 관리 당부

나주시가 겨울철 대설, 한파 이후 월동작물의 생육재생기를 대비한 관리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생육재생기는 월동 후 생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되는 때로 봄철 웃거름을 주는 시기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주지역 동계작물 생육재생기는 2월 상순~중순 이내이다. 마늘과 양파는 생육재생기를 기점으로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시비해야 한다.

맥류의 경우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 시비하는 것이 좋다.

월동작물 생육재생기엔 시비 관리와 병해충 방제가 한해 농사의 생육을 좌우한다.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솟구쳐 올라온 뿌리와 포기는 땅을 잘 눌러주거나 흙 덮기로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

양파 노균병과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습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와 조기 잡초 제거, 적용약제 살포 등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육재생기 서릿발 피해 예방과 제때 웃거름 주기, 습해 방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한해 수확량을 결정한다"며 "현장기술지원단 구성에 따른 적기 기술 지도와 농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시보건소가 나주시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나주시는 1월 24일부터 5월 15일로 지정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해 최근 발대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진화기초지식, 안전사고 예방, GPS 단말기 사용법, 산불 초기 진화 및 고립 시 응급조치법 등을 교육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11명씩 2개 조로 나뉘어 무단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불 초동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29명은 읍면 산불진화대로 배치돼 예방을 위한 현장 순찰 및 감시를 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산불 취약지역 254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 지정 책임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금성산, 덕룡산 등 10개 산, 총 16개소, 약 6000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7개 구간(27.5km)의 등산로도 폐쇄조치된다.

유사시 나주시·화순군·영암군에서 공동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진화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 현수막 21개소 설치와 취약마을 171곳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서약서를 제출하고 등산로 및 전통시장 캠페인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공영텃밭 분양 신청 접수... 도시농업 활성화

빛가람·봉황옥산텃밭 260구획

나주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영텃밭의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분양은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나주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분양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 260구획이 마련된다. 1구획당 면적은 약 9.9㎡(3평) 내외이며 연간 이용료는 5만원이다.

분양지는 빛가람공영텃밭(빛가람동 536번지) 200구획과 봉황옥산텃밭(봉황면 유곡리 9830-3번지) 60구획이다. 나

주시는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를 즐기고 농업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봉황옥산텃밭은 지난해 빛가람공영텃밭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분양 기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반영되어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27일까지이며 분양 대상자는 3월 13일에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영텃밭은 도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보건소, 어르신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82명 대상 체력측정 등

나주시보건소(소장 강용곤)는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모집을 통한 어르신 82명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주 2회, 1시간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하며 나주시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전문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지도를 맡는다.

프로그램에서는 의자 및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근력 및 지구력 운동, 유연성 및 균형 감각 향상 운동, 낙상 예방 생활 수칙 교육 등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종료 후 근기능(상지·하지), 심폐 지구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을 점검해 운동 전후에 따른 건강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강용곤 나주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와 낙상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심리검사·실전 모의 면접 등

나주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최진아)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

나주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취업 지원(집담상담)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이 직업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직업 선호도, 프레디저, MBTI)로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분석해 적합한 진로와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코칭, 모의 면접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전 취업 준비도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은 지역 내 구직 및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창업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 AI 기반 스마트 오피스 실무 과정, 사회복지 실무 마스터 과정 등이 준비됐다.

특히 올해부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여자에게는 수강료 부담을 덜어주는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훈련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할 경우 월 60시간 이상 기준으로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취업 의지가 확고하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나주시 경

력단절 여성 또는 연 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진아 센터장은 "나주새일센터는 여성들이 각각의 적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여성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61-333-2060)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여성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주=김용의 기자